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2025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5.10.01 - 10.21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광화문광장

주최 주관 광화문아트포럼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



광화문아트포럼

2025 올해의 작가

이 민 구

LEE, MIN 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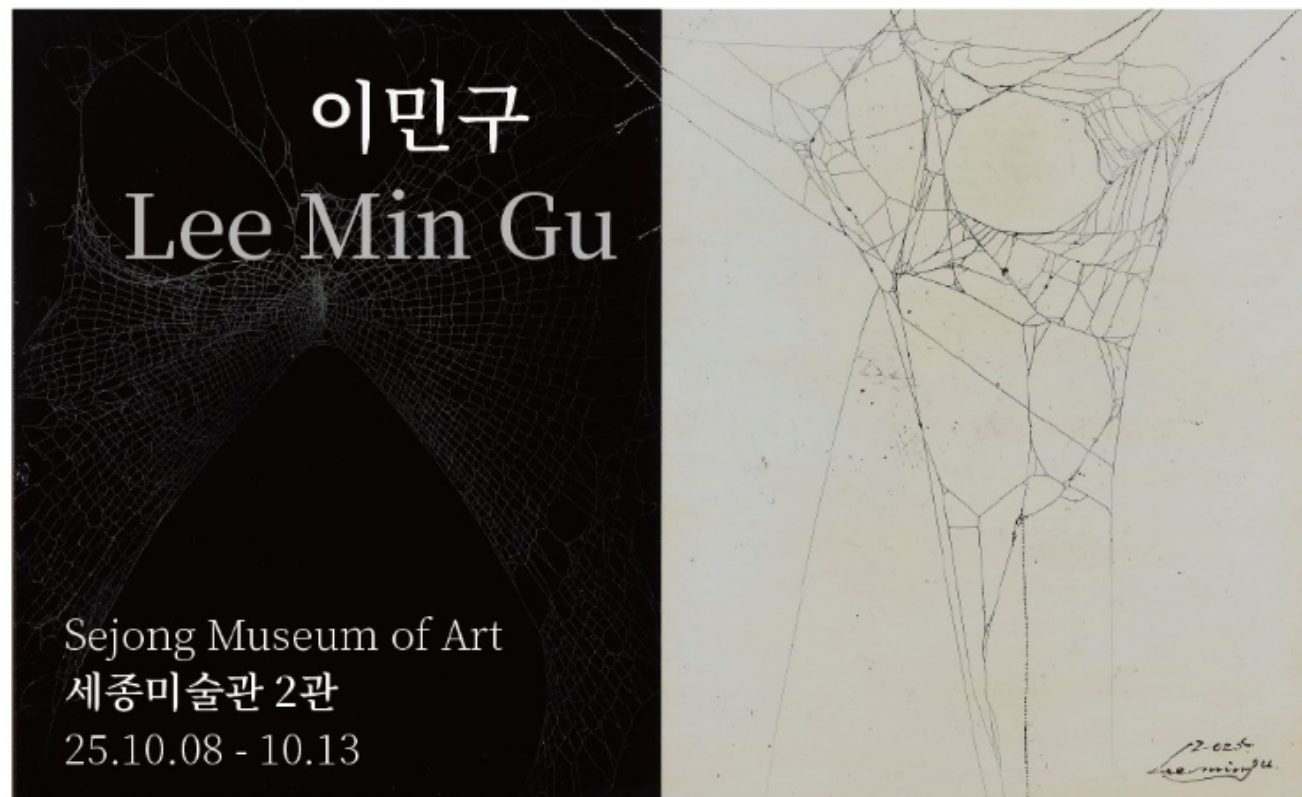
광화문아트포럼

2025
올해의 작가

2025 GAF 올해의 작가전

주최 주관 | 광화문아트포럼 /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후원 협찬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기초조형학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크리앤조이



안녕하십니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최재형입니다.

올해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제20회를 맞이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애써주신 예술가, 관계자,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술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입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지난 20년간 세계와의 교류 속에서 예술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장을 열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역 사회 또한 문화적으로 더욱 성숙해졌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예술가와 대중이 함께 호흡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가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고,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앞으로도 예술과 시민을 잇는 다리로서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축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아름다운 기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This is Jae Hyeong Choe, the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is even more meaningfu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rtists, officials, and audiences for their hard work over the years.

Art is not the exclusive property of a particular class, but the power to enrich everyone's lives.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has opened a place to communicate across boundaries, respecting the diversity of art in exchanges with the world for the past 20 years. In the process, we are proud that our communities have also become more culturally mature.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presents various exhibitions and programs to art-loving citizens, and provides a special time for artists and the public to breathe together. I hope this will be a meaningful time to inspire new creations and share the value of ar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ill continue to work as a bridge between art and citizens. Thank you again for your support for a long time, and I hope this festival will be a beautiful memory that will remain in your heart for a long time. Thank you.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최재형
Jae Hyeong Choe, the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GIAF

최재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입니다.

‘제2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위해 애쓰신 최재형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미래가 기대되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뜻깊은 미술 축제입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스무 살이 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앞으로의 20년을 향해 세계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성장하고 미래 세대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축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풍성한 가을날 많은 분들이 축제와 함께 더욱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Choi Hwi-young,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hosting of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Chairman Choi Jae-hyung and all the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festival.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is a meaningful art festival where you can see the works of artists representing Korean art and emerging artists who are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in one place. I hope that many citizens will be able to enjoy the works together and form a consensus and communicate through this festival again this year.

In addition, I hope tha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is now 20 years old, will play a big role in growing into a global cultural exchange venue and developing the artistic sensitivity of future generation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ll also support our cultural artists to fully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and help the people enjoy culture and arts more in their daily lives.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festival's hosting, and I hope many people will make more beautiful memories with the festival on a rich autumn day. I wish you all good health and happiness. Thank you.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최휘영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 호정 입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미술 축제인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20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채로운 축제 마련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써 주신 조직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작품으로 서울 시민들께 문화의 장을 공유토록 애써주신 작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올해로 20년째 열리는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두의 예술 축제로 국경과 세대, 나이를 초월한 여러 작품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사람과 문화가 문화가 모여 어울리는 이곳 광화문 광장이 문턱 없는 미술관, 소통하는 살롱이 되어 우리 서울 시민들께 풍성한 감성을 전하며 문화 예술의 위상을 드높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Choi Ho-jung, chairman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an art festival that everyone has been waiting for. I sincerely thank the organizers for their efforts to prepare a variety of festivals despite difficult conditions.

I would also like to thank and welcome the artists for their efforts to share the cultural arena with the citizens of Seoul with valuable works.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will be held for the 20th year this year, is an art festival for all citizens that can participate, bringing together several works that transcend borders, generations, and ages in one space.

I hope that Gwanghwamun Square, where people and cultures gather and harmonize, will become an art museum without thresholds and a salon for communication, conveying abundant sensibilities to our citizens and enhancing the status of culture and art. Thank you.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Ho Jung Choi, the chairperson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최호정

2025 제2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화문이라는 열림과 소통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누구나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올해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와 신선한 예술 경험 확대 등 늘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엄중섭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소프트 파워가 그 도시의 강점이 되는 오늘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다양한 장르가 융합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러한 아트페스티벌이 더욱 반갑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헌터스’ OS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앨범차트에 최초 동시 1위에 오르면서 열풍입니다. 한국 문화와 서구 문화가 절묘하게 결합된 요소들을 매력적으로 연결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K-시각예술 분야 또한 장르 간 융합으로 창의적인 혁신과 폭발적인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을 통해 서로 협업하며 우리의 창조적 미학과 철학이 세계 문화예술의 열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5 제2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문화 1번지’ 종로의 가을을 오롯이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hosting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5.

The festival venue, which everyone enjoys together in a symbolic space of openness and communication called Gwanghwamun, has been set up in abundance this year. I would like to thank Eom Jong-seop, CEO of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and other officials who are always striving to foster culture and art, such as revitalizing culture and art networks and expanding fresh art experiences.

The meaning of culture and ar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day, when soft power is the strength of the city, artists from different backgrounds meet to create synergy, various genres converge, and citizens directly participate in this art festival.

Recently, the OST of the Netflix animated film "K-Pop Demon Hunters" became the first to top Billboard's main single and album chart. It is gaining popularity around the world by attractively connecting elements that combine Korean and Western cultures. We also expect that our K-visual arts field will be able to bring out creative innovation and explosive potential through convergence between genres.

In the future, through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e hope that our creative aesthetics and philosophy can lead to the opening of the world's culture and art.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hosting of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in 2025, and I hope you enjoy the fall of Jongno, Korea's No. 1 cultural center. Thank you.

종로구청장 정문헌

Jeong Moon-heon, the mayor of Jongno-gu.

정문헌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유열입니다.

2025년 제20회를 맞이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본 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국내외 수많은 작가들이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선보이고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장이 되어 왔습니다.

예술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작가 한 분 한 분의 깊이 있는 작품 세계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새로운 영감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 20주년은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이정표라 생각합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서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This is Kim Yu-yeol, EBS Korean Education Broadcasting Corporation President.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hosting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marks its 20th anniversary in 2025.

Over the past 20 years, this even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representative art festival in Korea, and has been a place for numerous artists at home and abroad to show the diversity and creativity of art and communicate with visitors.

Art has the power to connect people across time and borders. Through this festival, we expect that each artist's in-depth work world will harmonize together to inspire new inspiration and vitality in our society and community.

In particular, I think this year's 20th anniversary is a meaningful milestone to look back on the past footsteps and prepare for a greater leap forward. I hope tha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ill continue to stand tall in the world as a venue for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Thank you.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유열

Kim Yu-yeol, EBS Korean Education Broadcasting Corporation President.

Kim Yu Yeol

안녕하십니까. 광화문아트포럼 회장 김춘옥 입니다.

2025 제2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각예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항상 애써오신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일원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열린 광장으로 거듭난 광화문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향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예술축제로 우리 곁에 다가 왔습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덕분에 한국시각예술의 품격이 날로 높아져 감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예술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민들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온누리에 전하고, 모두가 예술로 하나되어 진한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Kim Chun-ok, chairman of Gwanghwamun Art Forum.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hosting of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5. Thank you to the members and official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o have always worked hard for the development and popularization of visual arts.

Gwanghwamun, which has been reborn as an open square for citizens, has come to us as a richer art festival with the added scent of autumn. I am very proud to realize once again that the dignity of Korean visual arts is increasing day by day thanks to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Through this festival, I hope to reflect on the meaning and value that art gives to our lives once again and to permeate deeply into the hearts of citiz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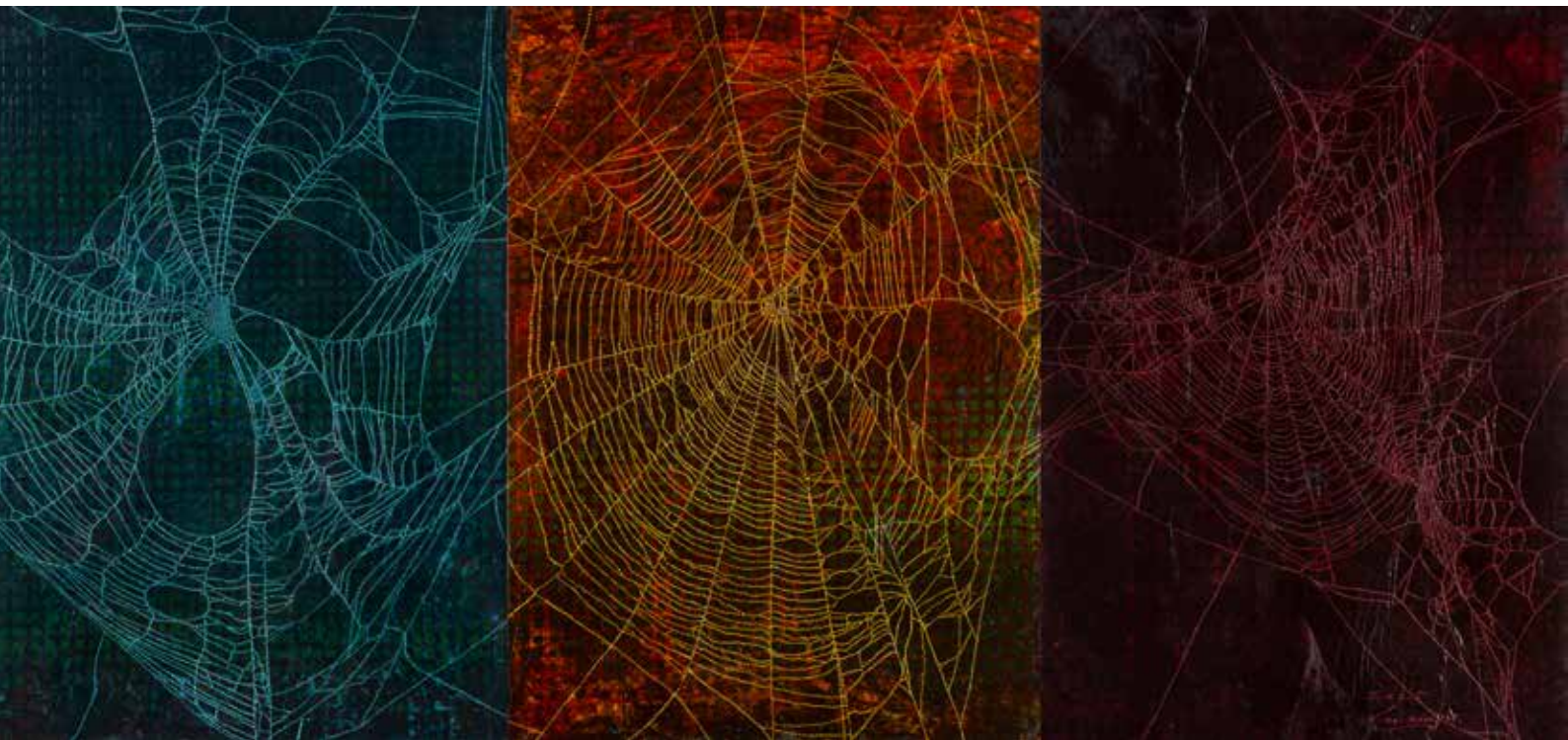
Please continue to show your interest and support so tha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can convey the value of Korean culture and art to Onnuri and share deep emotions as art. Thank you.

광화문아트포럼회장 김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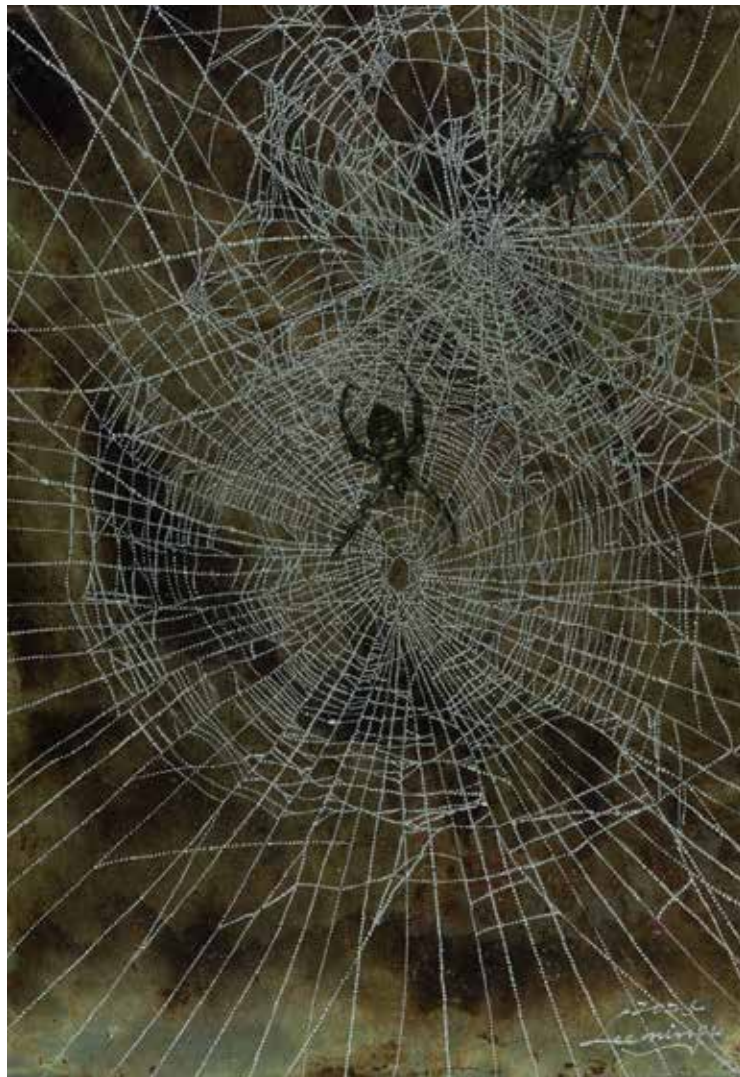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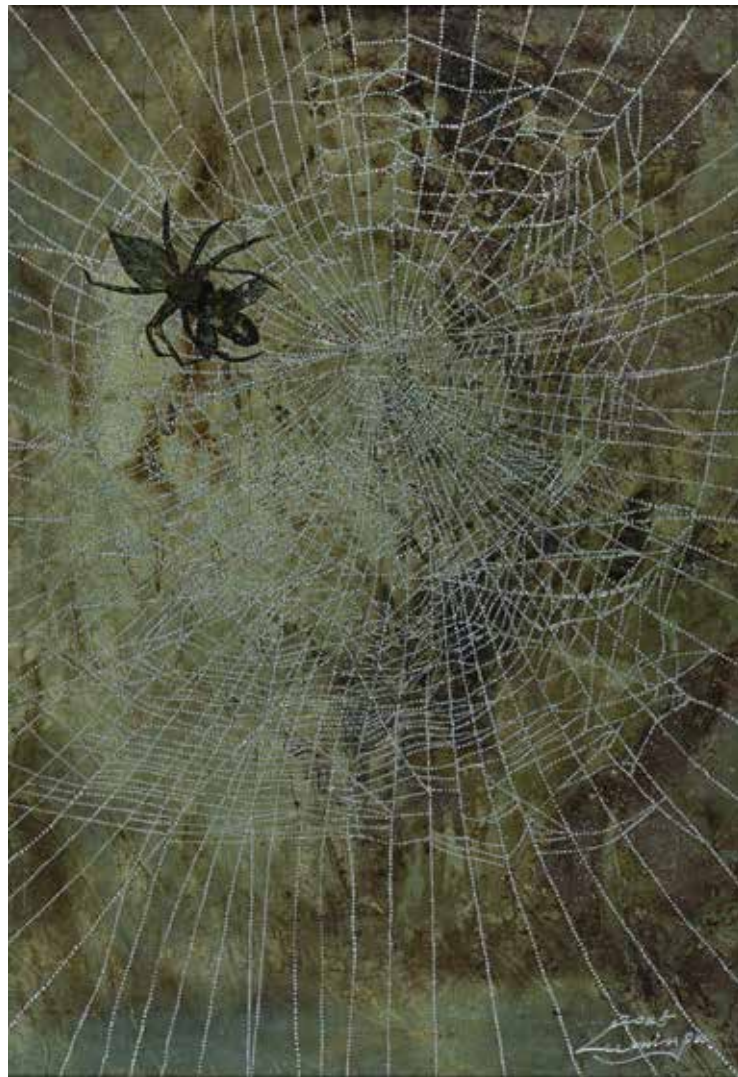
Kim Chun-ok, President of Gwanghwamun Art Forum.

김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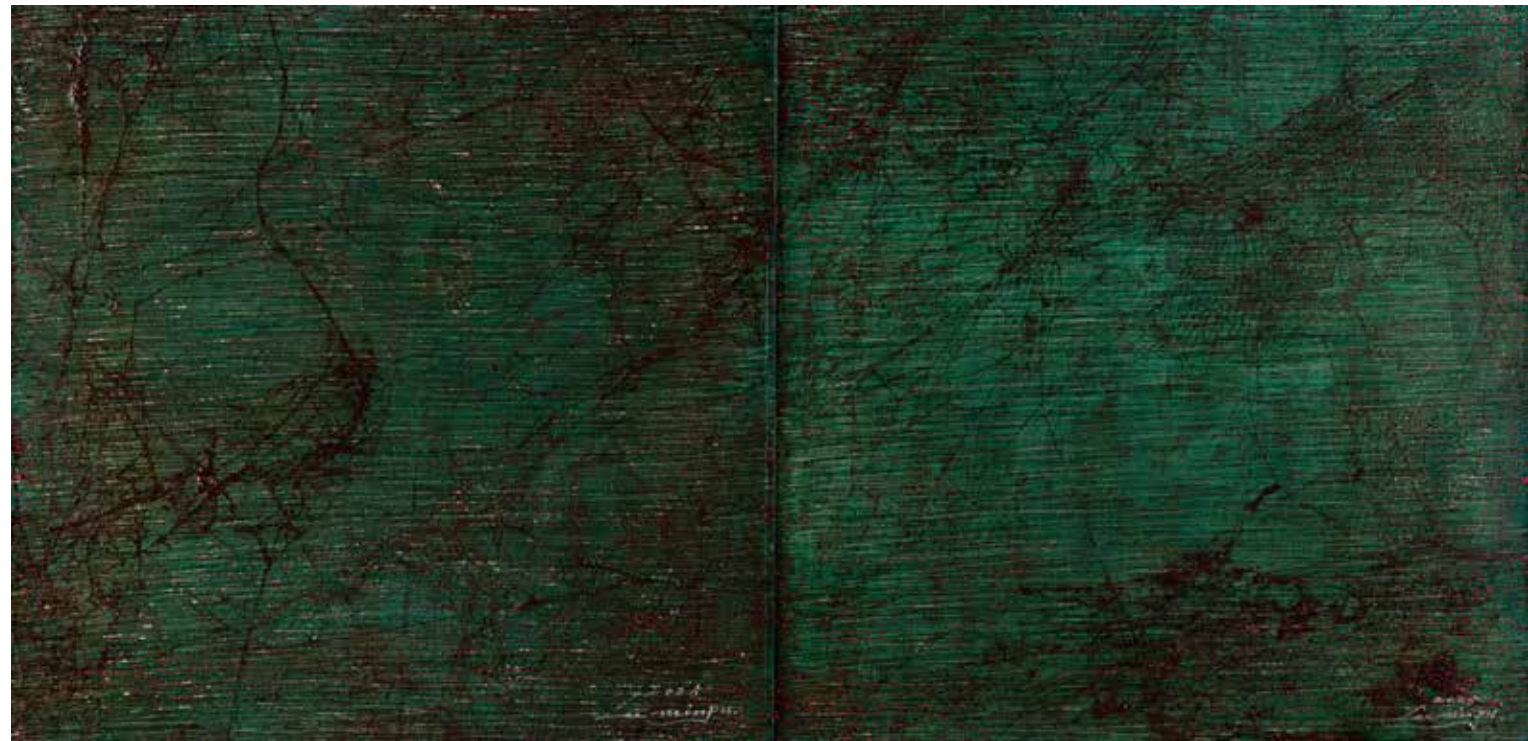
다시각적조형언어 시리즈_소우주(microcosmos)/ 65×134cm, 2025



생과사 시리즈_소우주(microcosmos)/ 60×84cm, 혼합재료, 2025



소우주(microcosmos)/ 95×120cm, 혼합재료, 2025



다시각적조형언어 시리즈_소우주(microcosmos)/ 60×120cm, 혼합재료, 2025



그의 소우주(microcosmos)는 억제하고 조절, 생략하는 페인팅 능력

이민구는 물감을 펴, 바르고, 억제하고, 조절, 생략하고 다시금 상처를 내어 상대적으로 시각의 자유로움을 얻어내는 작가다.

어쩌면 그가 화폭에 보인 긁고, 그려내고, 닳고, 덮고, 지우는 행위는 서로 다른 인지 방식을 질문하게 만든다. 이에 중첩된 깊이감은 조형의 확정성으로 전환되어, 보이지 않는 기운의 생동감이 드러나고, 우연과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관객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마치 열려있고 완결되지 않은 그것처럼 모호하고 신비롭다. 칠하거나 바르고, 긁고, 짜 밀어낸 다양한 질감은 켜켜이 쌓이며 캔버스 안의 보이지 않는 ‘소우주’ 공간을 보여 낸다.

이민구가 영위하는 많은 터치는 축적되고 진화하고 있다. 그의 ‘소우주’는 검은 바탕과 흰색 바탕 위에 은색과 검은색 거미줄의 교차를 통해 색 대비와 여백의미를 보여, 자연 안에 흐르는 역동성을 보인다. 자연과 다채로운 사물 위에 율동적인 행위를 더하여 변화된 질감과 제스처를 만들어내며 물리적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그의 회화는 간결함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판단을 담는다. 이는 재료와 긴밀하고 신랄한 대화를 내포하는 흔적 간의 유기적 관계로 형성된다. 이민구 회화에서 화폭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잠재성을 전면에서 드러내는 몸짓은 특정한 형태와 색상, 질감의 구별 없이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에 따라, 있는 듯 없는 듯 흔적이 남아 켜켜이 다채로운 색면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여기서 작가의 행동은 도상적 행위와 함께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형태 각각이 완성이 이르렀다고 느낄 때까지 시간을 소진한다. 끊임없이 반복, 변화하는 가속 상황에서 자각의 형태, 기호, 색감이 우러나 그의 회화는 보이지 않는 판단이 남는다.

그가 소우주에 보인 절제는 세련된 간결한 미적 감각의 구사다. 적당히 억제하고 생략함으로써 반면에 상대적으로 상상적인

시각의 자유로움이 숨어있다. 그의 자유스러운 터치와 자율성은 오묘하고 편한 감성이다. 그가 행한 드로잉에 의한 자유로운 표현들은 감각적이고 동시에 지적이다. 자연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채를 사용하여 평면적인 장식성의 요소를 환원시켜 이미지를 최소한 단순화시킴으로써 원시적 생명감으로의 인간의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의 작품에서 드러난 단순성과 평면성, 장식성, 추상성은 자연의 이미지를 그만의 독자적인 표현 기법으로 연출함으로써 예술적 차원으로 끄집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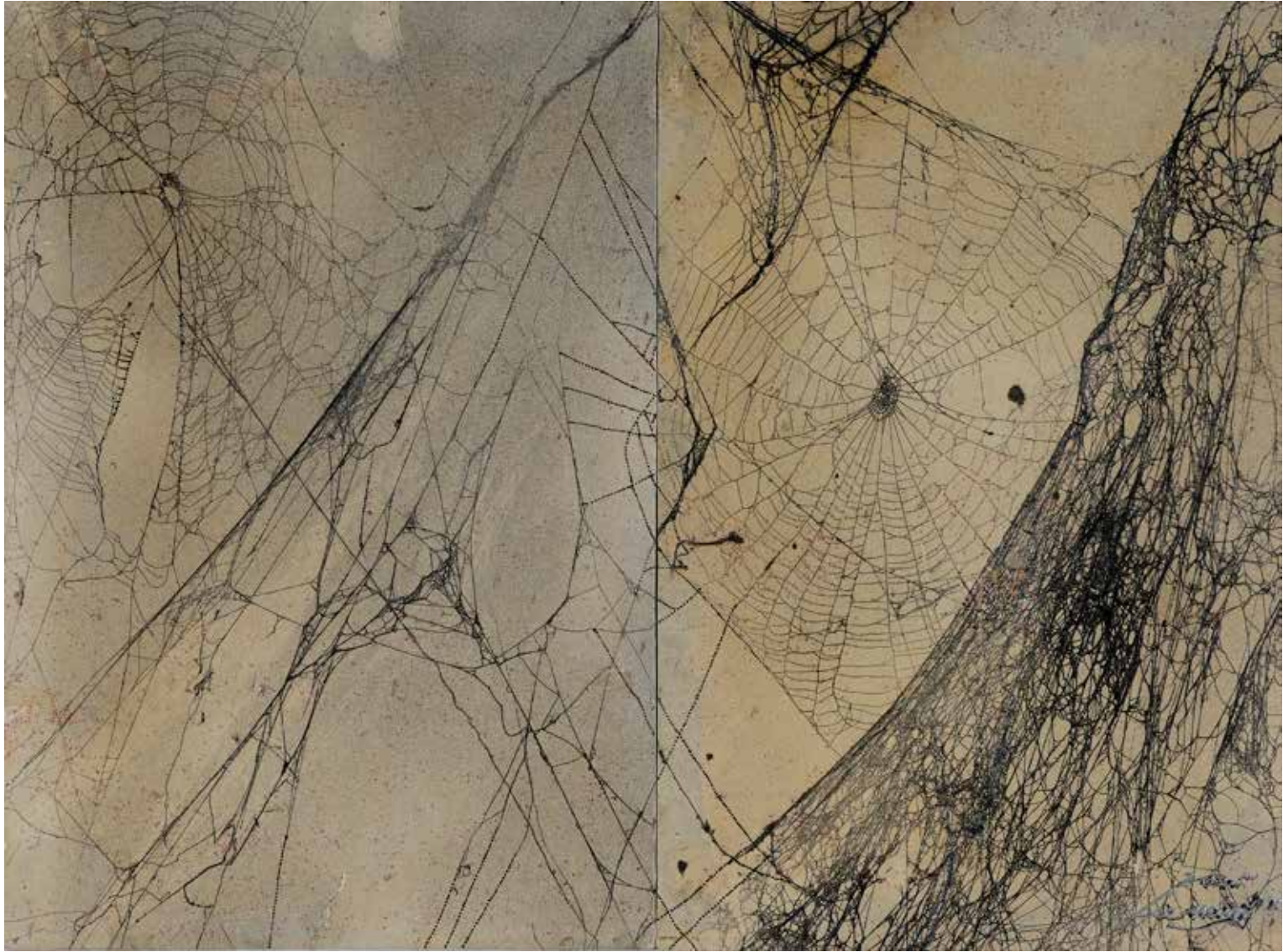
이민구 작가는 단지 물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나 관심이 대상은 아니다. 물성 그 자체라기 보다는 자유로운 정신을 담아내고,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조형성을 담고자 하는 작가의 근본 생각이 소우주에 담겼다. 그가 여정을 통해 이루어 낸 경험한 시간이자 공간의 추억을 시각적인 언어로 잡아둔 것이다.

작가의 철학이 담긴 거미줄 소재의 ‘소우주’는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듯 인간관계, 사회, 우주를 연상하게 한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관람객들에게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의 작품은 익숙함과 대중적인 호기심을 자극하여,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강렬하고 몽환적인 색채와 독창적인 기법을 통해 인간과 우주의 연결성을 탐구하는 이민구는 물감을 짜고 긋고 스며들게 하는 특유의 기법으로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그의 소우주는 어쩌면 거대한 서사를 품은 현대사회의 지도다. 독일 철학자는 “예술은 사회를 정화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작업은 바로 이 말을 실천처럼 보여준다.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그의 ‘소우주’ 회화는 우리가 놓친 연결, 지워진 기억, 가려진 것을 다시 그려낸 지도이며,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제시한다. 그의 소우주는 감각적으로도 독특하다. 소우주의 선의 흐름은 마치 정보의 유통망, 이동, 무언가의 확산 같은 사회의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의 작업은 추상적 형태와 방향성 있는 선을 통해 문화의 충돌, 정체성의 흐름, 이동과 경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보이는 구도, 빛, 깊이감, 정밀성은 보는 이를 끌어당긴다.

작가의 소우주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붙잡고자, ‘시간’이라는 비가시적 개념의 절대적 표현도 엿보인다. 덮고, 짜고, 쌓고, 그어 가며 화면 위에 새로운 층위를 구축하며 드러내는 과정은 곧 시간을 조형하는 이민구 작가만의 방식이 되었다. 이 겹은 마치 시간의 숨결이 머문 흔적처럼 화면 위에서 은은한 파동을 만든다.

예술가는 풍부한 감성, 생생한 상상력, 선명한 창작 능력과 개성이 쌓여 독창적 의식을 갖고 예술가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작가는 그러므로 예술작품은 이야기가 있고 자신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민구의 소우주(microcosmos)는 우주의 한 부분인 인간 속에 우주 전체의 모습으로, 소용돌이 모양으로 넓게 펼쳐있는 거미줄을 보면서 우주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가 거미줄을 이용해 형상화한 소우주에는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영향을 받은 모든 것들이다. 그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회화 본연의 재료기법에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화면의 효과와



소우주(microcosmos)/ 49×67cm, 혼합재료, 2025

보존성을 거미줄로. 실제 같은 외면을 넘어 내면의 본질까지 표현한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숨겨진 생명력과 우주 만물의 비밀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이민구 작가만의 특징이다.

그의 화풍은 간결히 압축된 거미줄의 미학이랄까, 그의 화면은 어디서 빌릴 것도 없이 차고 넘친다. 이민구는 생략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리는 능력을 지녔다. 그래서 그의 화풍은 거미줄 외에는 표현의 간결함을 통해 작품의 깊이와 묘사나 설명을 생략하여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여운을 준다. 한마디로 작가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단순화하여 유쾌하고 효율적인 아름다움을 이끌며 주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복잡하지는 않은 함축적인 화면 구성을 가져다준다.

그간 이민구는 거미줄 외에 그는 보이는 모든 것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투명하고 간략하게 그려낸다. 그가 그리는 단계 속에 삭제와 해체 과정 뒤에는, 마치 형상을 읽을 수 있는 그림을 거부하는 것이 마냥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다.

이민구는 대상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 그의 캔버스들 위에는 거미줄과 소우주는 이면의 층위가 유령처럼 존재하는 듯하다. 그가 머리에 기억된 형상을 화폭에 펼칠 땐 단순화한 형태감과 추상성도 보인다. 이민구의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화폭에 그려낸 감성의 흐름이 따라와 자신의 내면세계를 잘 자아낸다.

그의 화면은 얼핏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도 전면을 꽉 채우는 것처럼 질서를 보인다. 여백 부분이 생기든지, 사선 직선으로 배치하든지 나름대로 질서도 있는 듯하다. 더불어 비워지거나 채워지면 될 뿐 소우주의 꾸밈새가 의도적이지 않다. 이는 작가가 화폭의 공간 구성부터 즉흥적 직관에 의지한 탓이다. 그래서 이민구 회화의 화면 구성은 어떤 기운이나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강렬한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우주인 만물의 상호 연결성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지구와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질문한다. 이번 전시는 그의 소우주에 깃든 생명과 에너지를 포착하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른다는 개념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를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더불어 깊은 성찰의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안재영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 미술평론가)



His ability to control, control, and omit his “microcosmos”

Lee Min-gu is an artist who spreads, applies, suppresses, adjusts, omits, and cuts paint again to gain relatively freedom of sight.

Perhaps, the act of drawing, drawing, wiping, covering, and erasing on the canvas leads to questions about different cognitive methods. The sense of depth overlapped with this is transformed into the crystallization of the formation, revealing the vitality of the invisible energy, and the mixture of coincidence and unpredictable elements stimulates the audience’s imagination and leaves room for interpretation. It is ambiguous and mysterious as if it were open and unfinished. The various textures painted, applied, scratched, and squeezed are stacked on top to show the invisible ‘microcosm’ space inside the canvas.

Many of the touches that Lee Min-gu carries are accumulating and evolving. His ‘microcosm’ shows the beauty of color contrast and blank space through the intersection of silver and black spider webs on a black background and a white background, showing the dynamics that flow in nature. By adding rhythmic behavior on top of nature and colorful objects, it creates changed textures and gestures and records of physical existence.

His paintings contain simplicity and numerous invisible judgments. This is formed by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traces that contain close and acrimonious dialogue. In Lee Min-gu’s paintings, gestures that reveal the potential of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canvas create a connection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a specific shape, color, and texture. As a result, the colorful harmony of the colors remains as if there were none, which is impressive. Here, the artist’s actions, along with iconographic actions, exhaust time until each abstract and uncertain form feels completed. In the constantly changing acceleration situation, the form, sign, and color of awareness come out, leaving an invisible judgment in his painting.

The moderation he showed in the microcosm is the use of a refined and concise aesthetic sense. By controlling and omitting appropriatel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relatively imaginary freedom of sight hidden. His free touch and autonomy are subtle and comfortable sensibilities. The free expressions he makes by drawing are sensuous and intelligent at the same time. It makes us look at human nature and the universe as a primitive sense of life by minimizing the image by reducing the element of flat decoration using color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destroy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nature. The simplicity, flatness, decoration, and abstraction revealed in his work bring out the image of nature to the artistic level by directing it with his own expression technique.

Artist Lee Min-gu is not just an attempt or interest to express physical properties in a formative way. Rather than the physical property itself, the artist’s fundamental idea to capture the free spirit and to capture the simple and simple formality was contained in the microcosm. The time he experienced and memories of space achieved through his journey are captured in visual language.

The “microcosm” made of spider silk containing the artist’s philosophy grasps the flow of contemporary art and reminds us of human relations, society, and the universe as if connecting the past and the present. It explores new possibilities and provides visitors with a new perspective on art. Through this,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deeply contemplate the meaning and value of art. His works stimulate familiarity and public curiosity to increase access to art. Lee Min-gu, who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humans and the universe through intense, dreamy colors and original techniques, creates unpredictable shapes in free flow with a unique technique that weaves and seeps paint.

His microcosm is perhaps a map of modern society with a huge narrative. The German philosopher once said, “Art can purify society.” His work shows this very word as if it were a practice. In a chaotic and fragmented world, his ‘microcosm’ paintings are maps of connections, erased memories, and obscured things that we have missed, and at the same time suggest new spaces of possibility. His microcosm is sensibly unique. The flow of lines in microcosm shows the invisible flow of society, such as the distribution network of information, movement, and the spread of something. His work reveals the conflict of culture, the flow of identity, and the problems of movement and boundaries through abstract forms and directional lines, and the visible composition, light, depth, and precision attract the viewer.

The artist’s microcosm also shows the absolute expression of the invisible concept of ‘time’ in order to hold on to the flow of time that cannot be seen and touched. The process of covering, weaving, stacking, and constructing and revealing a new layer on the screen soon became the only way for artist Lee Min-gu to form time. This texture creates subtle waves on the screen as if the breath of time stayed.

An artist must lead an artist’s life with a sense of originality by accumulating rich sensitivity, vivid imagination, creative ability, and personality. Therefore, a work of art has a story and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Lee Min-gu’s microcosm came up with the image of the universe while looking at a spider’s web, which is spread widely in a spiral shape, in humans, a part of the universe. The microcosm he embodied using spider’s web is all he experienced and was influenced by in his lif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sing various materials, he uses spider silk to show the effects and preservation of various new screens in the original material technique of painting. You can get a glimpse of the world of works that express the inner essence beyond the real exterior. It is the characteristic of artist Lee Min-gu that it implies the hidden vitality and the secret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His canvas is the aesthetics of a concisely compressed spider web, or his screen overflows with no need to borrow it from anywhere. Lee Min-gu has the ability to draw by clearly distinguishing between parts that need to be omitted and parts that do not. Therefore, his canvas stimulates the audience’s imagination and gives a lingering impression by omitting the depth, description, or explanation of the work through the simplicity of expression other than the spider web. In a word, the artist removes and simplifies unnecessary elements to lead to pleasant and efficient beauty, and intentionally omits major parts, resulting in an implied screen composition that is not complic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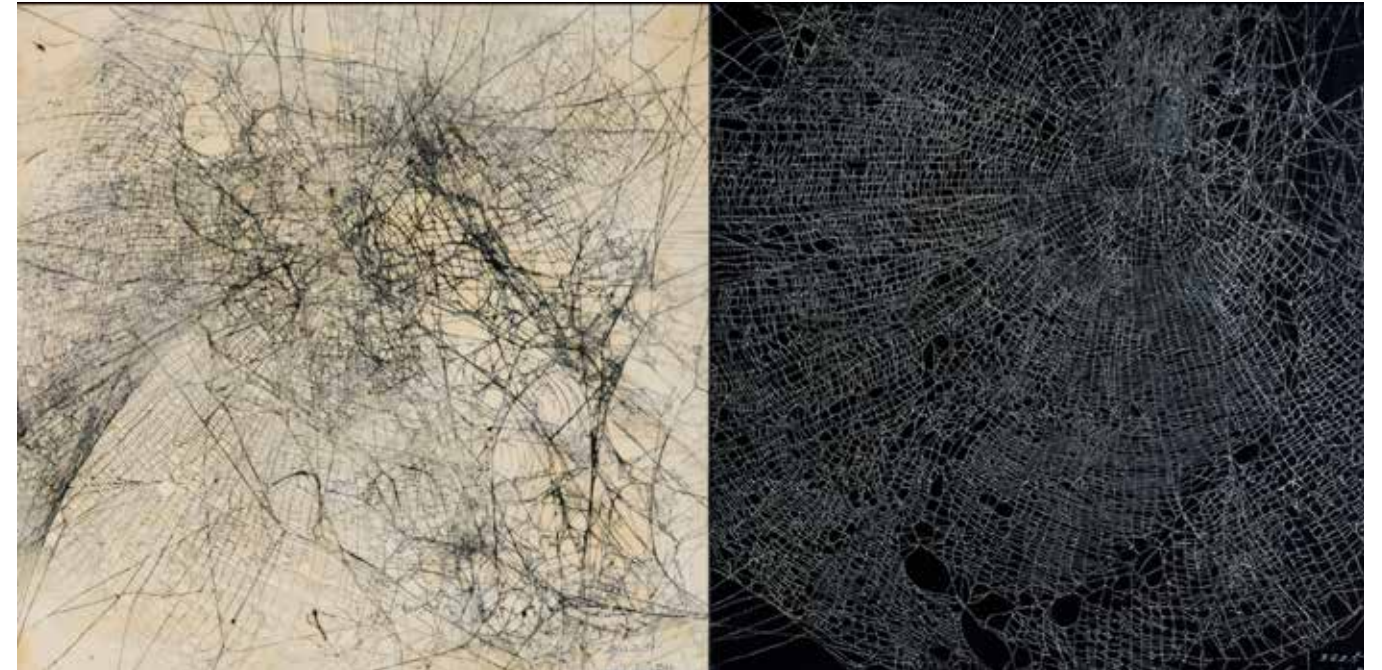
Until now, Lee Min-gu has been drawing transparently and briefly as if he wants to erase everything he sees other than spider silk. After the process of deletion and dismantling in the stage he paints, it is as if refusing a picture that can read the shape is a mark or trace left after a phenomenon or substance has disappeared or passed.

Lee Min-gu does not stop at simply looking at the object. On his canvases, spider webs and microcosms seem to have ghostly layers on the back. When he unfolds the figure remembered in his head on the canvas, he also shows a simplified sense of form and abstraction. Lee Min-gu's intention is not clearly revealed, but the flow of emotion drawn on the canvas follows and creates his inner world well.

At first glance, his screen seems disordered, but it shows order as if it were filling the front. Whether a blank part is created or arranged in a diagonal straight line, there seems to be order in its own way. It only needs to be empty or filled in together, but the decoration of the microcosm is not intentional. This is because the artist relies on improvised intuition from the composition of the canvas space.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the screen of Lee Min-gu's painting is very clear as if a certain energy or emotion is strongly revealed and visible.

His work does not just emphasize intense visual elements, but also contains a deep philosophical exploration of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things and the nature of existence, which are microcosms. Through his work, he asks what we are like on Earth and in the universe, and how our soul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This exhibition captures the life and energy of his microcosm, and rekindles the concept that everything is constantly changing and flowing. Through this, it will provide a moment of deep reflection as well as natural wonders.

Ahn Jae-young (Art plain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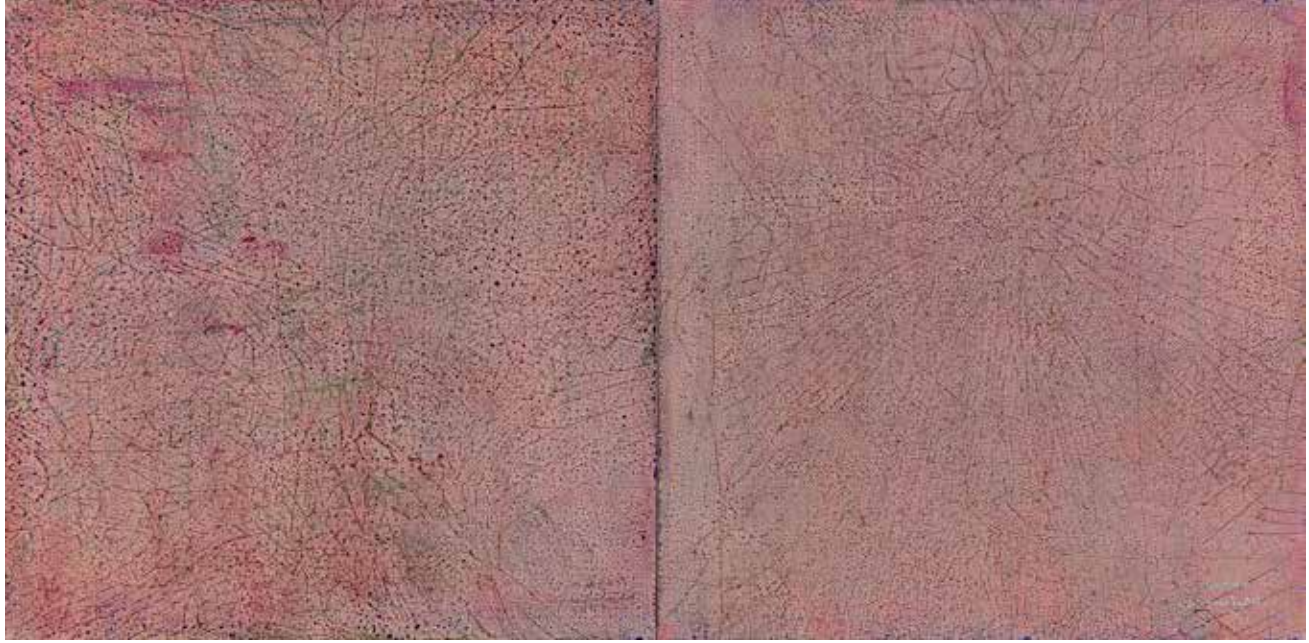
소우주(microcosmos)/ 95×120cm, 혼합재료, 2025



소우주(microcosmos)/ 90×120cm, 혼합재료,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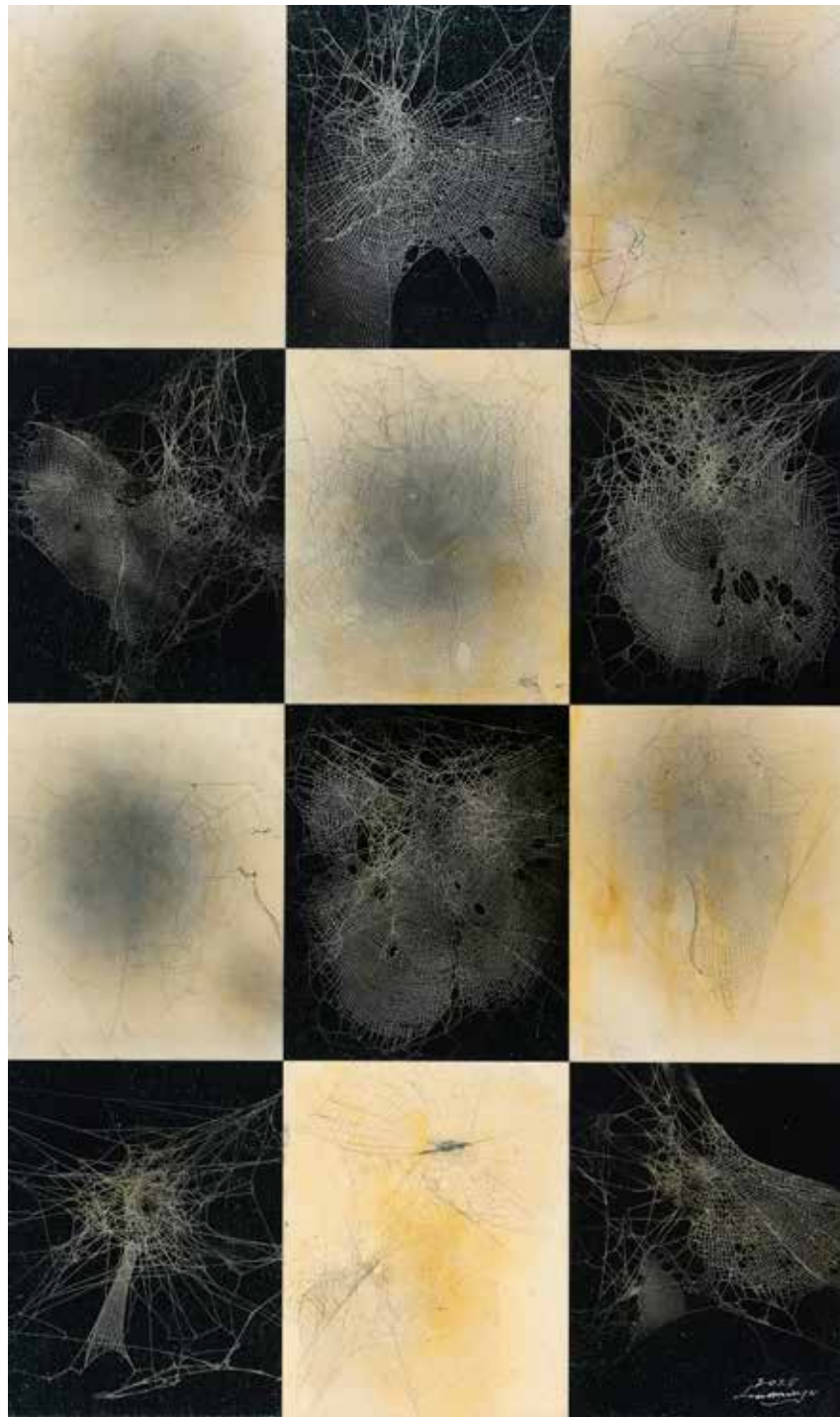


다시각적조형언어 시리즈_소우주(microcosmos)/ 60×120cm, 혼합재료, 2025



다시각적조형언어 시리즈_소우주(microcosmos), 60×120cm, 혼합재료,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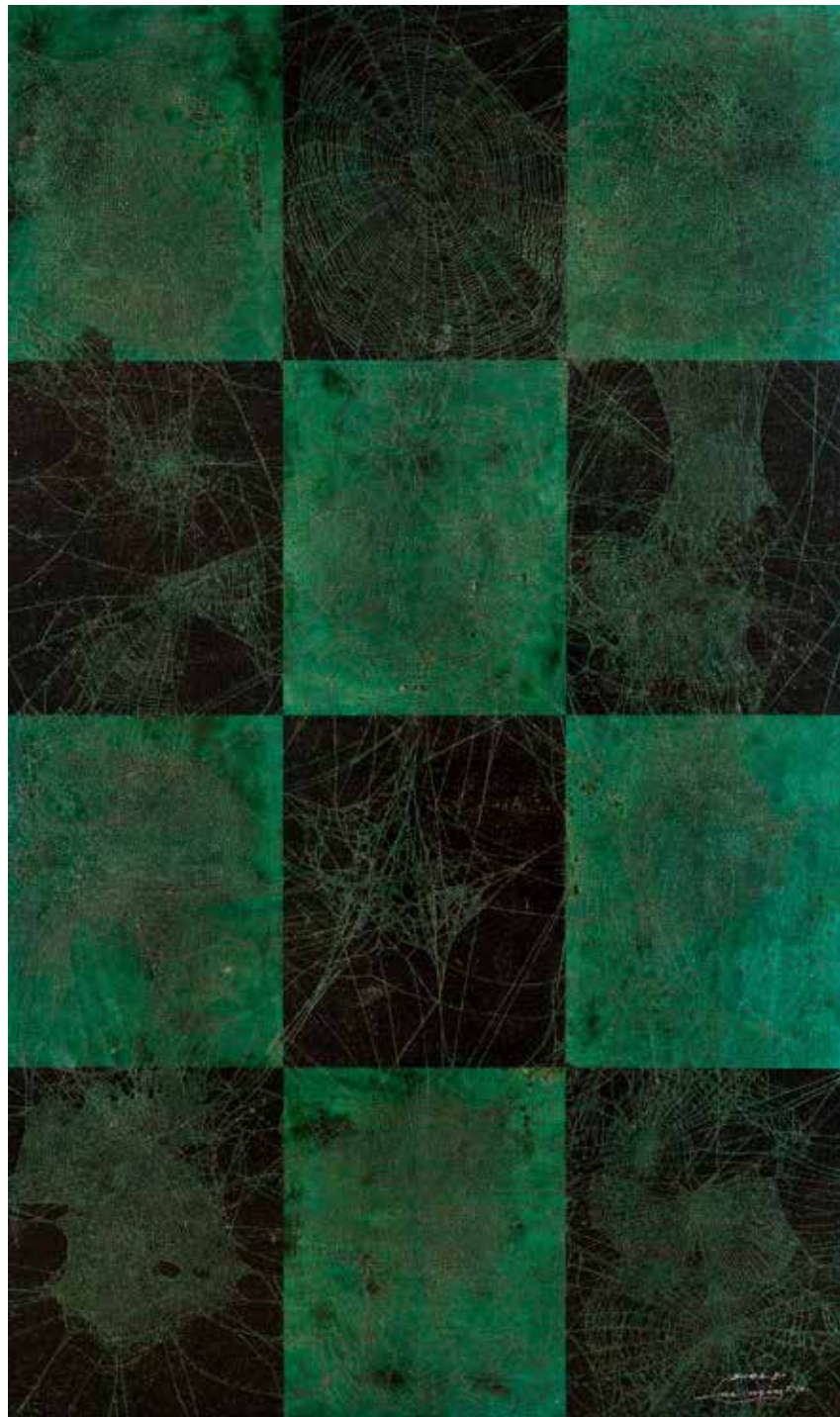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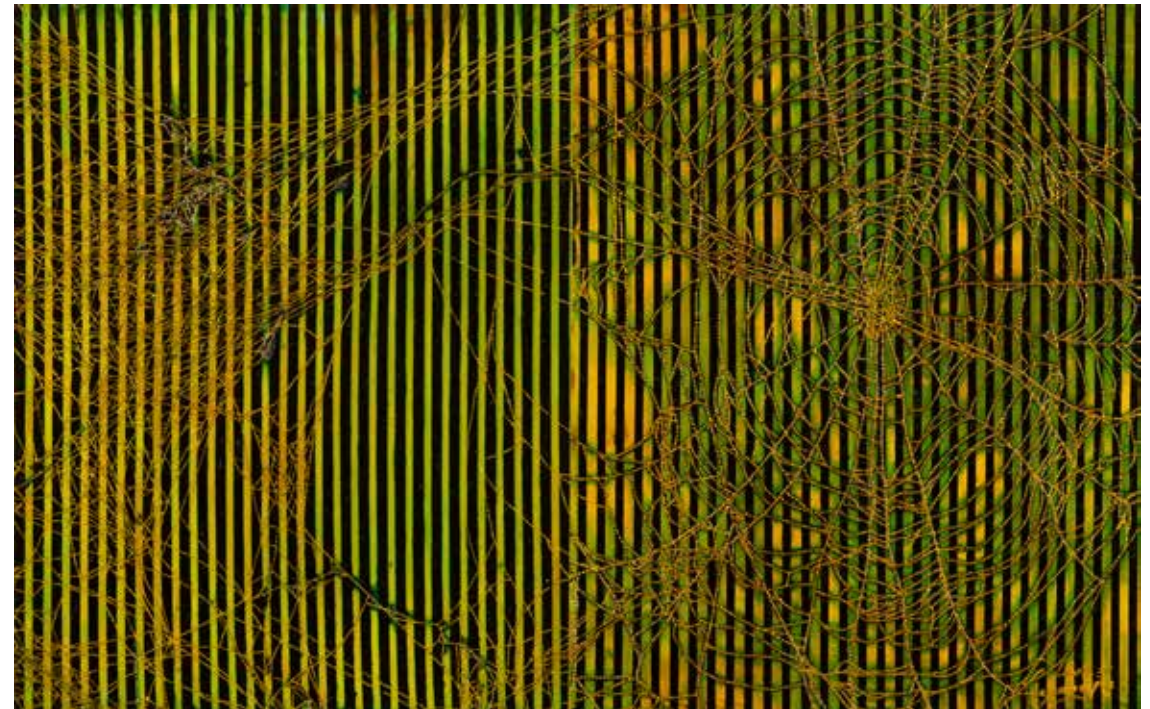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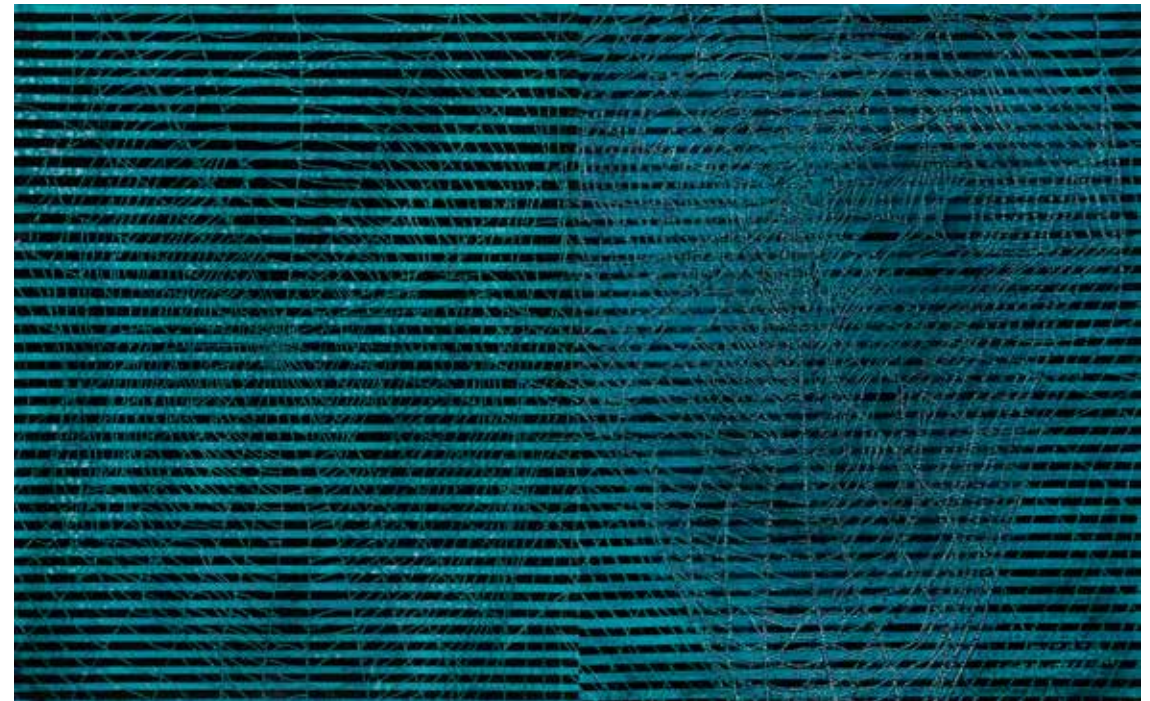
소우주(Microcosmos)
120×200cm, 혼합재료, 2025



소우주(Microcosmos)
120×200cm, 혼합재료, 2025



소우주(Microcosmos)
120×200cm, 혼합재료, 2025



소우주(microcosmos)
67×50cm, 혼합재료, 2025



다시각적조형언어 시리즈_소우주(microcosmos), 53×75cm, 혼합재료, 2025



다시각적조형언어 시리즈_소우주(microcosmos), 60×60cm, 혼합재료, 2025



다시각적조형언어 시리즈_소우주(microcosmos), 60×60cm, 혼합재료, 2025



다시각적조형언어 시리즈_소우주(microcosmos)/ 65×134cm, 2025



이 민 구

Lee Min Gu

학 력 1988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1990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과 졸업
석사학위논문 “한국 회화에 투영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개인전 39회

2025 Microcosmos - 39 (대덕문화센터 초대전, 대전)
2025 Microcosmos - 38 광화문 아트포럼 선정 올해의 작가상 초대전(세종문화회관 1관, 서울)
2025 Microcosmos - 37 (헤비츠갤러리 · 카페 초대전, 대전)
2025 Microcosmos - 36 (아지트갤러리 토대전, 서울/인사동)
2024 Microcosmos - 35 (윤갤러리, 대전)
2024 Microcosmos - 34 [서울아트페어, SETEC(1관/2관), 탄갤러리 초대부스전)
2023 Microcosmos - 3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갤러리, 목포)
2023 Microcosmos - 32 (아트센터신선-아트센터신선미술과,목포)
2022 Microcosmos - 31 (갤러리탄 초대전,대전)
2022 Microcosmos - 30 (정명희미술관-대전갤러리 초대전, 대전)
2021 Microcosmos - 29 (화니갤러리 초대전,대전)
2021 Microcosmos - 28 (침갤러리 초대전,공주)
2020 Microcosmos - 27 (기적의도서관 북갤러리 초대전, 공주)

단체전 아트페어 및 그룹전 300여회 출품

수 상 1987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제4회 후소화전 입선(호암갤러리, 서울)
구상전 입선(미술회관, 서울)
1988 중앙미술대전 입선(호암갤러리, 서울)
1990 동아미술대전 입선(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2 한국예총 대전직할시 지회장상 수상
2007 대전예술인대회-대전예총예술상 수상(대전문화예술의전당)

현 재 겸재미술대전 대전지부장, 오감회, 한국화-동질성전운영위원장, 이화전이사,
한국미술협회(대전지부)회원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대전시립미술관, 윤일송치과, 목원대학교, 수덕사, 대전중구문화원,
가례울공방, 대전서구문화원, MCA미술관, 가암갤러리, 라우갤러리, 우연갤러리, 메르헨갤러리
송은갤러리, 오원화랑, 현대갤러리, 성갤러리, 모리스갤러리, 미래디자인, 신세계백화점

광화문아트포럼

2025 올해의 작가

안 해 경

An, Hae Kyung

Sejong Museum of Art

세종미술관 2관

25.10.08 - 10.13

광 화 문 아 트 포 럼

2025 올해의 작가

2025 GAF 올해의 작가전

An Hae Kyung

주최 주관 | 광화문아트포럼 /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후원 협찬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기초조형학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크리앤조이

이 전시는 2025년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Exhibition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in 2025

안녕하십니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최재형입니다.

올해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제20회를 맞이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애써주신 예술가, 관계자,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술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입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지난 20년간 세계와의 교류 속에서 예술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장을 열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역 사회 또한 문화적으로 더욱 성숙해졌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예술가와 대중이 함께 호흡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가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고,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앞으로도 예술과 시민을 잇는 다리로서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축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아름다운 기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This is Jae Hyeong Choe, the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is even more meaningfu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rtists, officials, and audiences for their hard work over the years.

Art is not the exclusive property of a particular class, but the power to enrich everyone's lives.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has opened a place to communicate across boundaries, respecting the diversity of art in exchanges with the world for the past 20 years. In the process, we are proud that our communities have also become more culturally mature.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presents various exhibitions and programs to art-loving citizens, and provides a special time for artists and the public to breathe together. I hope this will be a meaningful time to inspire new creations and share the value of ar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ill continue to work as a bridge between art and citizens. Thank you again for your support for a long time, and I hope this festival will be a beautiful memory that will remain in your heart for a long time. Thank you.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최재형

Jae Hyeong Choe, the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GIAP

최재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입니다.

‘제2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위해 애쓰신 최재형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미래가 기대되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뜻깊은 미술 축제입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스무 살이 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앞으로의 20년을 향해 세계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성장하고 미래 세대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축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풍성한 가을날 많은 분들이 축제와 함께 더욱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Choi Hwi-young,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hosting of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Chairman Choi Jae-hyung and all the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festival.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is a meaningful art festival where you can see the works of artists representing Korean art and emerging artists who are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in one place. I hope that many citizens will be able to enjoy the works together and form a consensus and communicate through this festival again this year.

In addition, I hope tha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is now 20 years old, will play a big role in growing into a global cultural exchange venue and developing the artistic sensitivity of future generation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ll also support our cultural artists to fully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and help the people enjoy culture and arts more in their daily lives.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festival's hosting, and I hope many people will make more beautiful memories with the festival on a rich autumn day. I wish you all good health and happiness. Thank you.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최휘영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 호정 입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미술 축제인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20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채로운 축제 마련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써 주신 조직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작품으로 서울 시민들께 문화의 장을 공유토록 애써주신 작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올해로 20년째 열리는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두의 예술 축제로 국경과 세대, 나이를 초월한 여러 작품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사람과 문화가 문화가 모여 어울리는 이곳 광화문 광장이 문턱 없는 미술관, 소통하는 살롱이 되어 우리 서울 시민들께 풍성한 감성을 전하며 문화 예술의 위상을 드높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Choi Ho-jung, chairman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an art festival that everyone has been waiting for. I sincerely thank the organizers for their efforts to prepare a variety of festivals despite difficult conditions.

I would also like to thank and welcome the artists for their efforts to share the cultural arena with the citizens of Seoul with valuable works.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will be held for the 20th year this year, is an art festival for all citizens that can participate, bringing together several works that transcend borders, generations, and ages in one space.

I hope that Gwanghwamun Square, where people and cultures gather and harmonize, will become an art museum without thresholds and a salon for communication, conveying abundant sensibilities to our citizens and enhancing the status of culture and art. Thank you.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Ho Jung Choi, the chairperson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최호정

2025 제2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화문이라는 열림과 소통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누구나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올해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와 신선한 예술 경험 확대 등 늘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엄중섭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소프트 파워가 그 도시의 강점이 되는 오늘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다양한 장르가 융합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러한 아트페스티벌이 더욱 반갑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헌터스' OS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앨범차트에 최초 동시 1위에 오르면서 열풍입니다. 한국 문화와 서구 문화가 절묘하게 결합된 요소들을 매력적으로 연결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K-시각예술 분야 또한 장르 간 융합으로 창의적인 혁신과 폭발적인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을 통해 서로 협업하며 우리의 창조적 미학과 철학이 세계 문화예술의 열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5 제2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문화 1번지' 종로의 가을을 오롯이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hosting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5.

The festival venue, which everyone enjoys together in a symbolic space of openness and communication called Gwanghwamun, has been set up in abundance this year. I would like to thank Eom Jong-seop, CEO of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and other officials who are always striving to foster culture and art, such as revitalizing culture and art networks and expanding fresh art experiences.

The meaning of culture and ar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day, when soft power is the strength of the city, artists from different backgrounds meet to create synergy, various genres converge, and citizens directly participate in this art festival.

Recently, the OST of the Netflix animated film "K-Pop Demon Hunters" became the first to top Billboard's main single and album chart. It is gaining popularity around the world by attractively connecting elements that combine Korean and Western cultures. We also expect that our K-visual arts field will be able to bring out creative innovation and explosive potential through convergence between genres.

In the future, through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e hope that our creative aesthetics and philosophy can lead to the opening of the world's culture and art.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hosting of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in 2025, and I hope you enjoy the fall of Jongno, Korea's No. 1 cultural center. Thank you.

종로구청장 정문헌
Jeong Moon-heon, the mayor of Jongno-gu.

정문헌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유열입니다.

2025년 제20회를 맞이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본 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국내외 수많은 작가들이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선보이고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장이 되어 왔습니다.

예술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작가 한 분 한 분의 깊이 있는 작품 세계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새로운 영감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 20주년은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이정표라 생각합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서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This is Kim Yu-yeol, EBS Korean Education Broadcasting Corporation President.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hosting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marks its 20th anniversary in 2025.

Over the past 20 years, this even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representative art festival in Korea, and has been a place for numerous artists at home and abroad to show the diversity and creativity of art and communicate with visitors.

Art has the power to connect people across time and borders. Through this festival, we expect that each artist's in-depth work world will harmonize together to inspire new inspiration and vitality in our society and community.

In particular, I think this year's 20th anniversary is a meaningful milestone to look back on the past footsteps and prepare for a greater leap forward. I hope tha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ill continue to stand tall in the world as a venue for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Thank you.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유열

Kim Yu-yeol, EBS Korean Education Broadcasting Corporation President.

Kim Yu Yeol

안녕하십니까. 광화문아트포럼 회장 김춘옥입니다.

2025 제2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각예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항상 애써오신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일원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열린 광장으로 거듭난 광화문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향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예술축제로 우리 곁에 다가 왔습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덕분에 한국시각예술의 품격이 날로 높아져 감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예술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민들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온누리에 전하고, 모두가 예술로 하나되어 진한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Kim Chun-ok, chairman of Gwanghwamun Art Forum.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hosting of the 20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5. Thank you to the members and official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o have always worked hard for the development and popularization of visual arts.

Gwanghwamun, which has been reborn as an open square for citizens, has come to us as a richer art festival with the added scent of autumn. I am very proud to realize once again that the dignity of Korean visual arts is increasing day by day thanks to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Through this festival, I hope to reflect on the meaning and value that art gives to our lives once again and to permeate deeply into the hearts of citizens.

Please continue to show your interest and support so tha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can convey the value of Korean culture and art to Onnuri and share deep emotions as art. Thank you.



광화문아트포럼회장 김춘옥
Kim Chun-ok, President of Gwanghwamun Art Forum.

김춘옥

그녀의 수묵, 담채, 채색은 하나의 기호가 되어 유유(悠悠)하다.

안재영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 미술평론가)

그간, 안해경의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삶을 기반으로 한 사유를 담고 있다. 그녀는 이번 전시에서 수국(水菊)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면의 평온과 생명력을 조명한다. 안해경 작가의 작품 세계는 단순히 인물, 동물, 꽃, 자연의 재현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며, 탄생과 죽음 그리고 유기적 관계라는 존재의 순환을 잠재적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이번엔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수국의 섬세한 소리를 작품에 담아낸다.

안해경 작가는 인물, 동물, 들풀, 꽃, 수국 등과 더불어 '삶의 여유'와 '자연의 유기적 관계' '수국과 여유' 등을 선보였다. 필자는 안해경의 수묵 인물화도 인상적이지만, 붓의 운용 능력이 잘 훈련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명암이나 채색 없이 오직 먹의 농담과 선, 면의 조절을 통해 소재의 형태를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생력'이 좋고 이를 현대적으로 잘 끌어내고 있다.

안해경의 수국(水菊)은 피고 지는 자연의 순리를 담아 우리의 삶에 안착했다. 그녀의 수국(水菊) 색감은 채색이 주가 되도록 먹의 사용을 줄이고, 여러 차례의 열은 색을 쌓아 선보인 농채화 곧 수묵채색화다. 마치 화폭엔 유행을 따르지 않는 기품도 있어 보이고, 온화한, 정결하지만 예술에 대한 세련된 기품도 함께 자아낸다. 하물며 삶에 유기적 관계를 풀어온 안해경의 수묵담채화(水墨淡彩畵)는 화려한 채색이 아닌, 먹의 은은한 색감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사용하여 깊이감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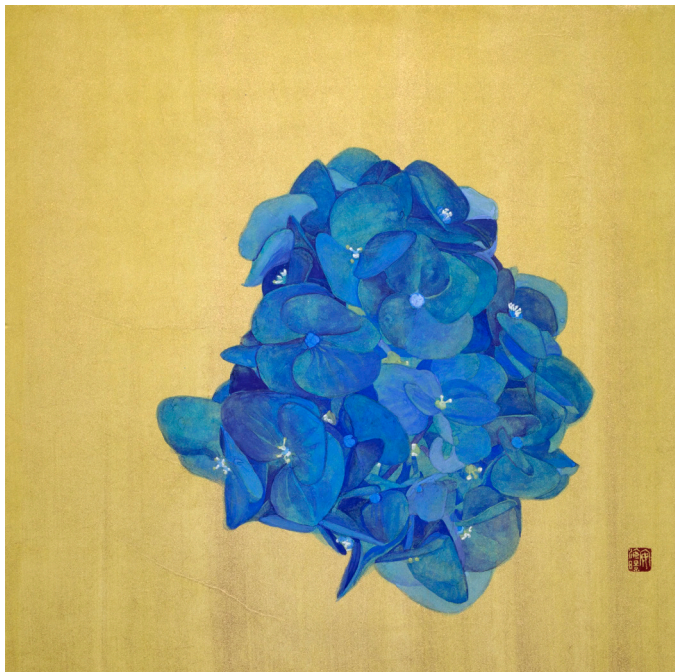
그녀의 조형적 접근은 들풀, 꽃, 자연에 의해 길러진 생명체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한다. 이번 수국(水菊) 꽃잎 하나하나의 느낌은 인상적이고 이젠 작품 속의 수국은 점차 그녀만의 기호처럼 전해진다.



유기적관계, 60x72cm, 장지에 채색, 2023

이젠 안해경이 그려낸 사물과 화면의 소소한 변화와 계획된 화면 구성은 품위와 격이 생성한다. 더불어 편안한 느낌으로 마주하게 한 화면 구성이 돋보인다. 이는 화폭 화면의 일부 이미지를 조정하며 조화롭게 어레인지 (arrange) 한 안해경의 수국(水菊)에서 발견된다, 이렇듯이 그녀의 채색화는 주관적인 세계관을 반영하는데 단순히 소재의 아름다움을 부추기는 차원을 넘어 심미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양한 시대의 미술 작품을 보면 심심찮게 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간혹 화면 속 꽃들에서, 그중에서도 특유의 분위기와 감성을 자아내는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못> 등이 보게 되는데, 안해경의 수국(水菊)은 어떠한가. 그녀가 표출한 색감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고혹이 담겼다. 왜냐하면 안해경 작가는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수국(水菊)을 통해 품 안에 넣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해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기적관계3, 50x50cm, 장지에 채색, 2023



유기적관계2, 50x50cm, 장지에 채색, 2023

작품 속 배경을 가득 채운 잎사귀 모양의 형상들은 작가의 뿌리다. 반복적인 모양이지만 각각의 색채에 선 다른 자극이다. 이는 마치 색깔이나 구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 채색은 칠하고 또 칠해가는 작업을 통해 색의 심층 감을 보였다. 안해경의 작품은 형사를 통해 자연의 생명성을 표현하고 수묵의 변주를 통해 회화적 실험을 지속하면서 한 차원 높은 사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녀는 붓질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는 꽃 작업 신작과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자연의 모습을 끊임없이 탐구한 수국(水菊) 작품을 선보인다. 안해경 작가의 자연은 재현의 대상이 아닌 삶에 대한 존재의 감각과 생성을 탐색하는 회화의 언어로 확장된 대상이다. 내면화된 감각의 파동을 보여주는 작가의 작업을 통해 수국을 바라보는 생명력 그리고 작가가 자연과 맺는 생동하는 삶의 유기적 관계의 흔적을 찾게 된다.

누구나 저마다 오아시스를 마음에 품고 산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흔들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이번 전시에서 안해경은 수국(水菊) 속에서 삶의 소통을 발견한다. 인간 삶처럼 꽃이나 수국(水菊)은 보통 형태와 색채가 다양하여 각각 그 특징이 있다. 어쩌면 작가는 수국을 통해 회로애락의 감정, 성격, 사랑과 갈등, 삶의 가치 등을 녹여내고 있다.

안해경의 화폭엔 정적인 수국과(水菊) 공간과의 관계를 표출하여 고요함과 평온함을 화면에 담아냈다. 정적인 수국에서 오는 깊은 잔잔함은 자연의 경이로움에서 나온다. 이를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불안과 걱정 속에 휴식과 따뜻함을 전하며 그녀는 그림 안에서 수국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담았다.

작가는 수국(水菊)을 바라볼 때 인간이 느끼는 유기적 회로애락을 어떻게 표현해서, 화폭에 창의적으로 담아야 할지 항상 고민해 왔던 것 같다. 안해경의 수국(水菊)은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을 취하게 만든다. 그녀의 화폭 공간에서 몰입과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것, 여백의 공간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다.

안해경의 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수국(水菊)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일은 재미있다. 재료의 성질을 떠나, 작품을 더 깊게 관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먹의 변화와 필력의 운용을 비교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진지한 작품감상 행위에 진입하는 길이다. 소박하게 말하면 안해경 작가의 수국은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담아내고 그녀의 행위는 모두 우리의 삶과 생각, 문화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언어이다.

그녀가 하나의 수국(水菊)을 화면에 채우는 작업은 현대적인 미학에 관한 관심을 잘 보여준다. 단색조의 색채 이미지와 간명한 형태 및 구조를 통해 시각적인 압박을 준다. 클로즈업과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모른다. 안해경의 작업엔 수국(水菊)의 생명력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야 효과적으로, 꽃의 깊이감을 보여주기 위해선 어떤 구도로 들어가면 좋을지 하는, 고민이 엮여 보인다. 그녀에게는 무관심 속에서 자라나는 꽃들의 모습은 통제와 억압을 모르는 생명, 그 자체의 형상이다. 안해경 작가의 색 한 점은 무의식적으로 연속되는 붓터치로 중첩하며 채도와 명도를 높이고, 중력에 의해 마구 흘러내리다 멎힌 비정형의 선을 거슬러 결국 수국(水菊)의 존엄한 생명력을 강조한다. 더불어 밝은색이 쌓여가면서 수국(水菊)의 공간감과 깊이감을 만든다.

작가가 화폭에 만들어낸 공간은 관찰, 해석, 단순화 그리고 다시 채워가는 과정을 거쳐 결국 하나의 화면을 넘어선 수국(水菊)을 보인다. 그녀는 형상을 멀리서 관조한다. 형상과 날씨, 계절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담긴 수국의 풍경을 관찰해 그 만의 공간을 담아낸다. 작가 스스로 관찰한 공간을 화폭에 옮기고, 눈으로 가능한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고, 생기가 넘치는 수국의 풍경을 잔잔히 펼친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꽃 재현’이라는 채색화의 일차적 목표를 뛰어넘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나라를 펼쳐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해경은 대상을 관조하는 순수성이 그의 그림 저변에 깔려있다. 화면 앞에서 차분히 대상을 음미하고, 마치 수를 놓는 듯한 ‘미학’도 그녀의 작품에 스며있다. 어쩌면 예술이라는 것이 숙명적으로 인공적임에도 불구하고 안해경의 그림에서 우리가 인위적인 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정서가 예술과 육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녀가 인물을 중심에 둔 ‘공사장 풍경’ 등의 작품에선 사회성, 즉 현실에 관한 관심 및 이해를 적극 반영한다. 다시 말해 회로애락의 시각 및 사고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 자신의 관점과 유기적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녀의 채색화에서 보여주는 형태 묘사를 보면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물, 꽃, 동물 등을 소재로 한 일련의 작품은 수묵, 담채, 채색을 통해 사실을 말해준다. 이렇듯 안정된 조형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그녀의 화폭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다. 특히 소재의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수국(水菊)은 전통적인 기법을 따르면서도 현대적인 미학을 수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수국(水菊)을 소재로 하는 일련의 작품들은 이미지가 두텁고 깊다. 밝고 맑은 색채이미지로 꽃이 가지고 있는 본디 아름다움을 부각하려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중후한 색채감각을 구사한 것은 심의의 세계를 투영시키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물흐르듯8, 116.8x91cm, 장지에 채색, 2025

자연, 꽃 그리고 여유로움

자연은 정연한 질서 속에서 생성과 변화를 거듭하는 신비로운 존재이다. 때로는 복잡다난한 만상이 모순과 갈등 속에 존재하면서도 나뭇의 질서를 가지고 상호 조화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연은 나에게 내면의 평온을 찾게 하는 영감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꽃은 그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가장 아름답게 응축된 결정체이다.

특히 수국은 수많은 꽃잎이 겹겹이 모여 하나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그 자체로 화합의 미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이 작은 꽃송이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여유の本질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꽃처럼 본연의 모습을 마주하며 얻는 내면의 평화이다.

작품들은 한국화의 채색화로, 전통적인 장지에 분채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화면의 중앙에는 한 송이의 꽃 만을 배치하고, 잎사귀는 생략하여 오직 꽃 자체에만 시선이 집중되도록 했다. 이는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꽃의 본질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바라는 의도이며, 꽃잎의 미세한 겹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부여한다. 주로 사용된 색은 연두색, 흰색, 파란색, 분홍색으로, 수국 본연의 색을 표현하면서도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시절인연1, 60x72cm, 장지에 채색, 2025



시절인연2, 60x72cm, 장지에 채색, 2025

물흐르듯5, 72.7x90.9cm, 장지에 채색, 2024





좋은날, 116.8x91cm, 장지에 채색, 2024



좋은날5, 116.8x91cm, 장지에 채색, 2024



만개, 120x120cm, 장지에 채색, 2024



만개2, 90.9x72.7cm, 장지에 채색, 2024

물흐르듯2, 20x20cm, 장지에 채색, 2025





제주산책, 116.8x91cm, 장지에 채색, 2023



후포리, 116.8x91cm, 장지에 채색, 2023



제주산책2, 80x160cm, 장지에 채색, 2023

꽃을 보며 여유(餘裕)를 찾다

수국은 작은 꽃들이 모여 크고 탐스러운 한 송이를 이루니 볼 때마다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작은 꽃들은 모두 똑 같아 보이지만 한 잎 한 잎이 지나온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각양각색을 보여준다. 어떤 꽃은 활짝 피어 시들어 가고 어떤 꽃은 조금 덜 피어 싱싱하다. 그리고 저마다 피는 속도에 따라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 조화롭다. 우리는 수국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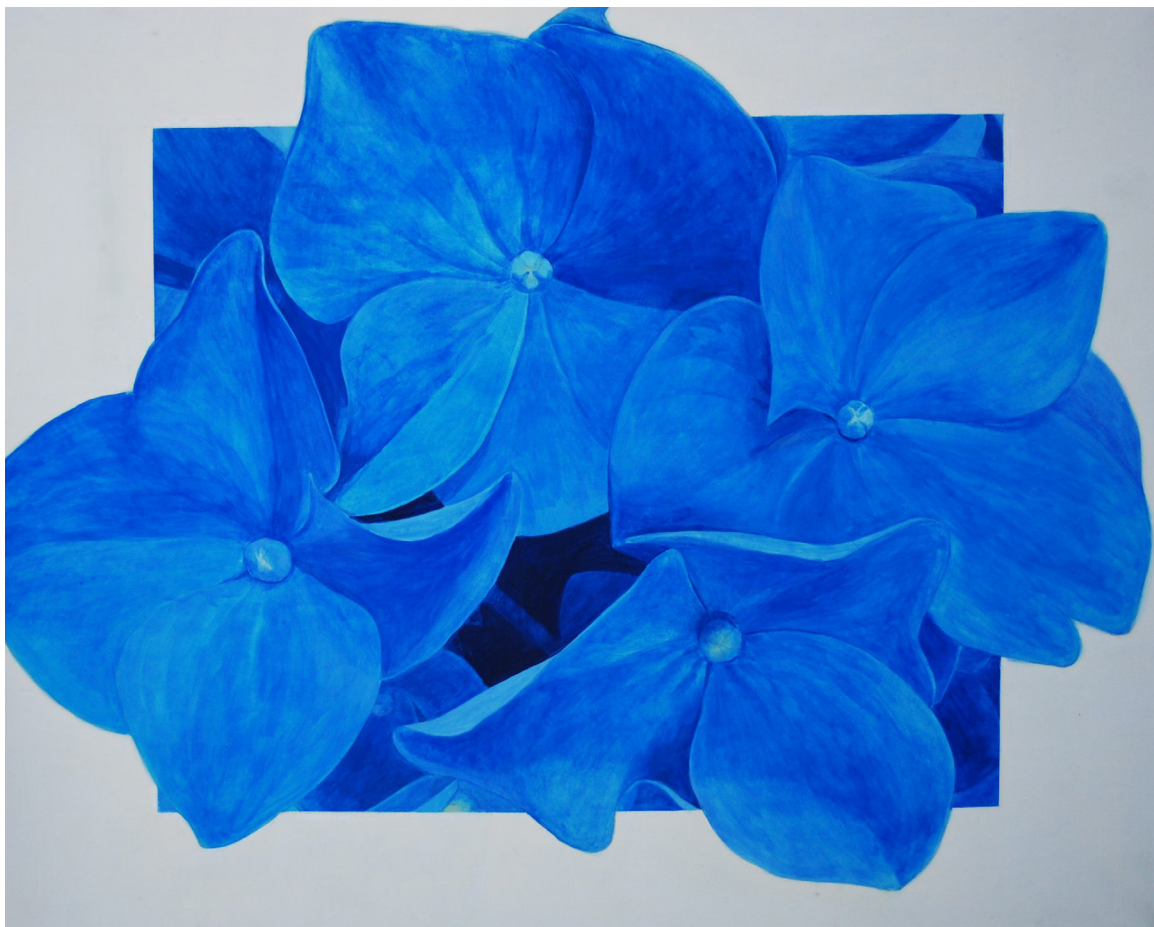
우리들 삶도 수국의 작은 꽃들처럼 희로애락(喜怒哀樂)이 있고 그 모양도 개인마다 다르다. 이러한 다름은 관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조화를 이루듯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산다면 삶은 매일 매일이 선물일 것이다.

心觀樓에서





여유5, 80x160cm, 한지에 채색, 2021



수국, 72.7x91cm, 한지에 채색, 2021



수국, 지름 97cm, 한지에 채색, 2021



여유2, 120x120cm, 장지에 채색, 2021



여유2, 120x120cm, 한지에 채색, 2021



An Hae Kyung

안해경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예술학과 박사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한국화 전공)

개인전 및 기획초대전

- 2025 남자 없는 미술사와 한국화여성작가(세종문화회관 제2관)
- 2025 자연-여유餘裕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 2024 삶의 조각들 (저녁노을 미술관, 도초수국정원 수국센터)
- 2024 시정화의 (이천월전미술관)
- 2024 한일국제교류전 (일본-오사카한국문화원)
- 2023 색채로 기억한 시간의 역사(인사아트센터 1,2층)
- 2023 지금-여기, 우리는(동덕아트갤러리)
- 2022 제8회 대전국제아트쇼(대전컨벤션센터)
- 2022 K아트2022 (부산벡스코)

현 재

한국미술협회, 한국화진흥회, 한국화여성작가회,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동서미술문화학회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비매 품/무료

03650



9 791199 505902

ISBN 979-11-995059-0-2